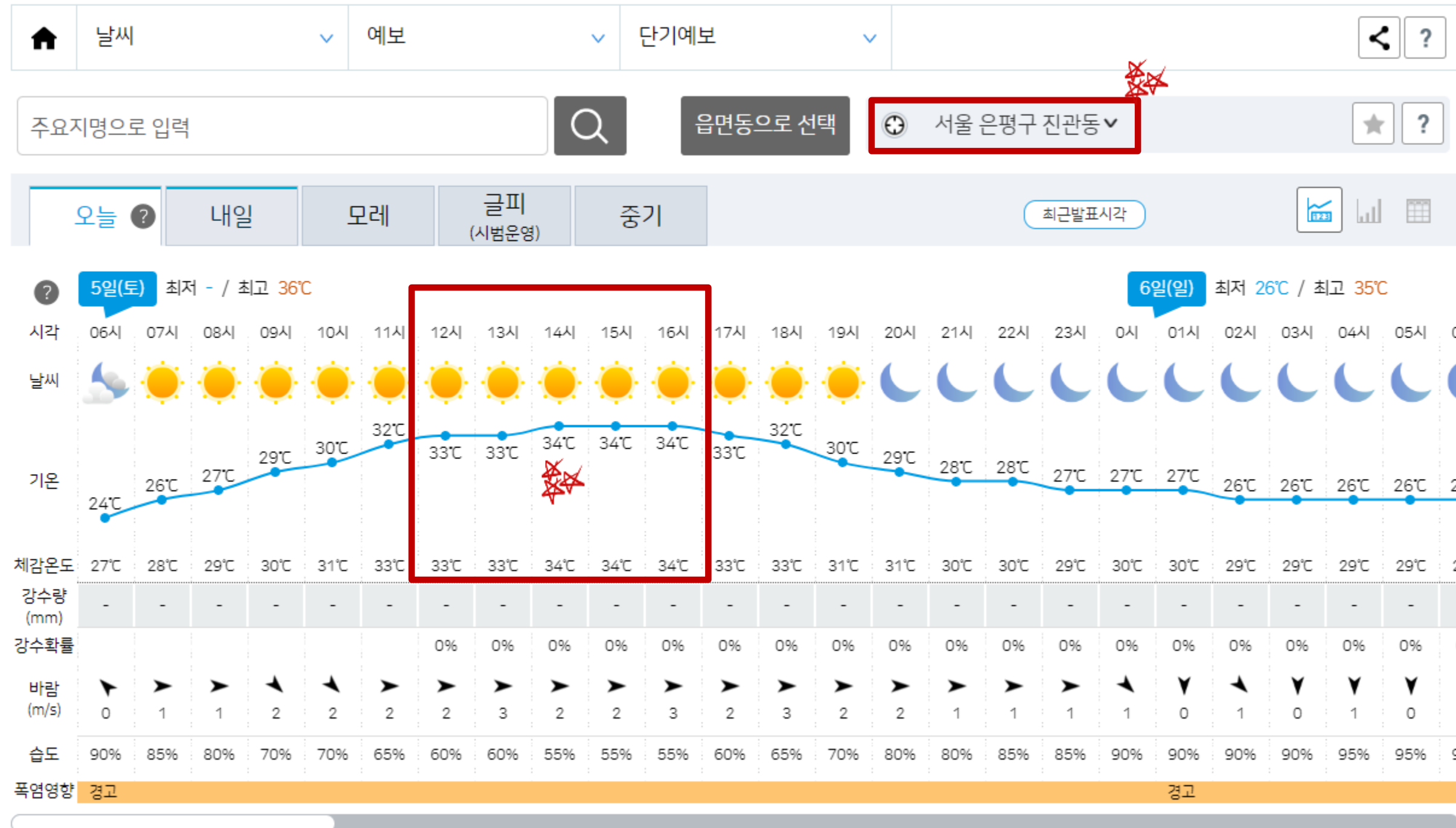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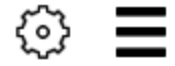


- 전일 대전에서 평촌으로 올라와서 22:30에 일찍 잠들었습니다. ㅎㅎㅎ
너무 꿀 잠(?)을 잤는지... 거의 4:50분에 기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산행을 하기에 날씨가 어떨지... 5시 30분에 옥상에 올라가 보았는데... 일출 해야 하는 '태양'은 아직 '청계산'을 넘어 오지는 못한 것이 확인 되고... '시계'는 무척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산'으로 달려 가야지요... 오늘 처럼 "시계"가 좋은 날도 많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만, 체감 기온이 35도를 넘는 살인적인 날씨가 등산을 하는 데, 문제가 될 듯 합니다.~~

단기예보



← 운동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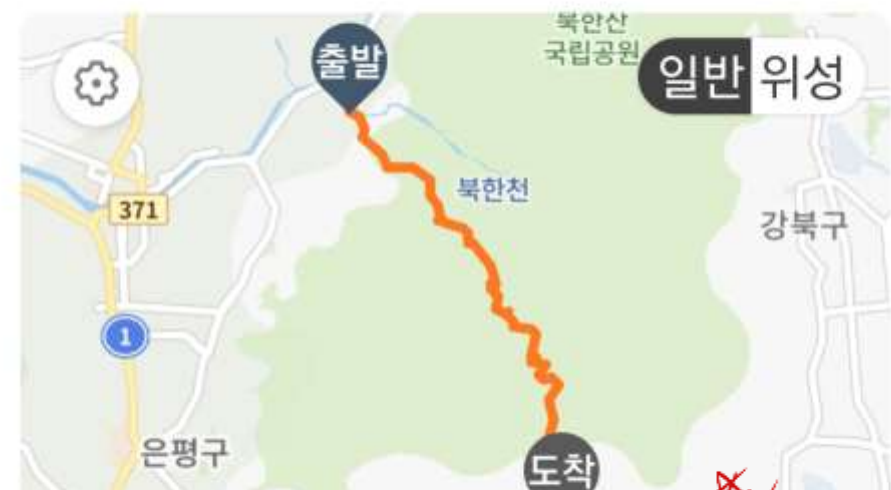
[북한산] 북한산성탐방지원센터
~의상능선~보현봉~평창계곡~
평창공원지킴터

토파즈113 LV 42
2023-08-05 19:21:48 조회 0

따라가기

그날의 날씨는? ☀ 서울 종로구
26.0° / 36.0°C

코스 정보



9.14km | 10시간 50분

코스 주변 배지

둘러보기

공유하기

다운로드 0



오늘은 새벽에 옥상에 가서 확인하니,
'시계'가 평소 보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북한산'을 가서,
'북한산 사령부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의 모습들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산행을 해야 하는데...

비탐방 '상장 능선' ? 으로 갈 까..
도봉산 ? 으로 갈 까..
탐방 능선인 '의상 능선' 으로 갈 까.. ...

개인적으로 "의상 능선"은 두 번 가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전체적으로 처음 부터 끝까지... 산행'

나머지 한 번은 국녕사 부근에서 새치기(?) 하여,
'증취봉' 지나 '부왕동 암문'에서 '산영루'를 거쳐,
도선사로 가 원점 회귀 차량 회수를 했을 때
지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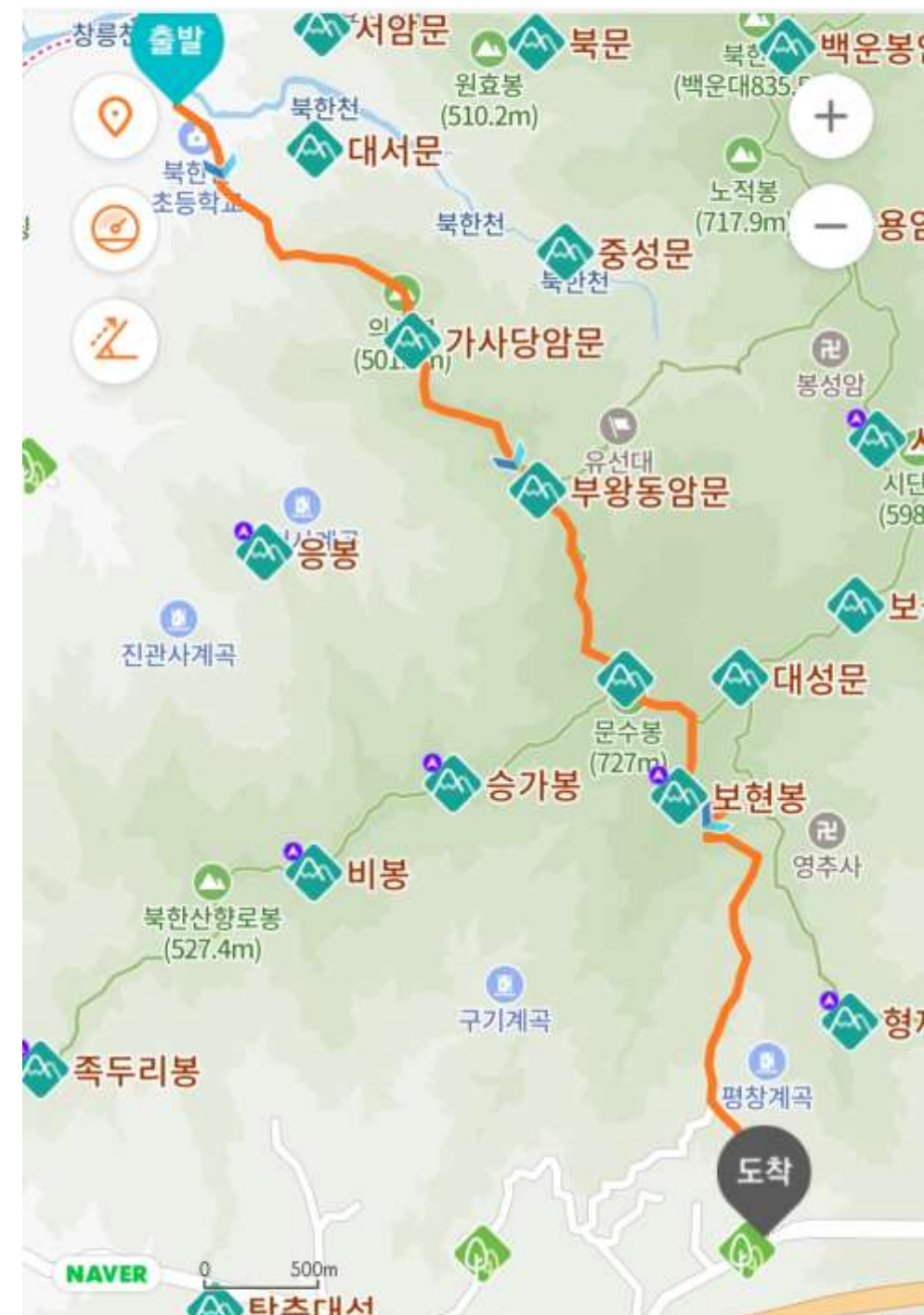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 '북한산 사령부' 쪽과
은평구 방향의 능선들을 기분 좋게 조망하기 위해...
"북한산 의상능선"을 Full Course로 2번째로
가봐야겠습니다.



하산은 '보현봉' 사자 능선 방향으로... ㅎㅎㅎ

(※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ㅋㅋㅋ)

← [북한산] 북한산성탐방지원... ⚙



운동 거리 9.13km

운동 시간 10시간 50분

AI 시간예측 3시간 40분

내비

역방향

따라가기

← 운동정보



운동 정보 >

운동 시간 10:50:41 초		운동 거리 9.14 km
평균 속도 1.1 km/h	평균 경사도 21.6 %	누적 고도 816 m
소모 열량 3,206 kcal		

공유하기 다운로드 0



‘온열 질환’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도 뉴스에 계속 나오고...

이런 날씨에 거의 11시간 운동을 했습니다.
(※ 이동 + 사진촬영 + 휴게시간 + 식사 등)

얼굴이 거의 다 익었네요~~ ㅋㅋㅋ



총 12개 뱃지도 획득을 했습니다. ㅎㅎㅎ
뱃지는 가장 맨 아래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고,
한 칸씩 위로 올라 가시면
‘경로를 아실 수 있을 것 입니다.’

← 운동정보

Kcal

획득 배지 12개 ^



보현봉



대남문



문수봉



청수동암문



나한봉



나월봉



부왕동암문



증취봉



용혈봉



용출봉



가사당암문



의상봉

공유하기 다운로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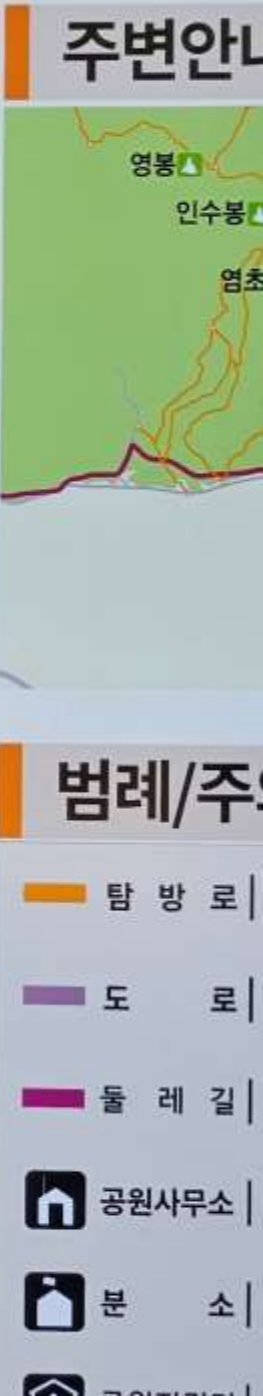




- 4호선 평촌역입니다. 이 곳에서 '당고개행' 열차는 매주 토요일 6:24분 도착을 합니다. 약 5분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 구파발역 2번 출구에서 내려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지하철 이동 시간은 거의 1시간 10분 정도 입니다. ㅎㅎㅎ



- 34번 / 704번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TAXI를 타고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북한산성분소)' 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매우 절약이 되는군요... ㅎㅎㅎ
'북한산 의상능선'은 '의상봉을 시작으로 문수봉' 까지 4.0 ~ 4.5km 에 이르는 산행 코스로는 짧지 않은 코스 이며, 가파름의 정도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
공식적인 탐방로 안내에는 '어려움 (고동색) / 매우 어려움 (검은색)' 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제 천천히 등산 채비를 마치고, 뒤 쪽으로 걸어 올라 갑니다. / ‘플라타너스’ 나무의 지름이 엄청 나게 크네요….



- 현 시각이 08:30 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산객님’ 들이 거의 없습니다. / ‘북한산성분소’ 를 지나고 있습니다.
약 5분 후, 대서문 방향 가는 도로에서 ‘우측 의상봉 방향’ 으로 분기를 해야 합니다.



- 탐방로 안내를 자세히 살펴 봅니다. 저는 의상 능선에서 힘든 구간이 3~4군데 정도 있는 듯 합니다. ① 의상봉 까지 가는 길, ② 용출봉 오르는 길, ③ 나월봉 가는 길, ④ 상원봉 가는 길 ... 특히, 나월봉 오르는 길이 지난 번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체력적으로 소진이 많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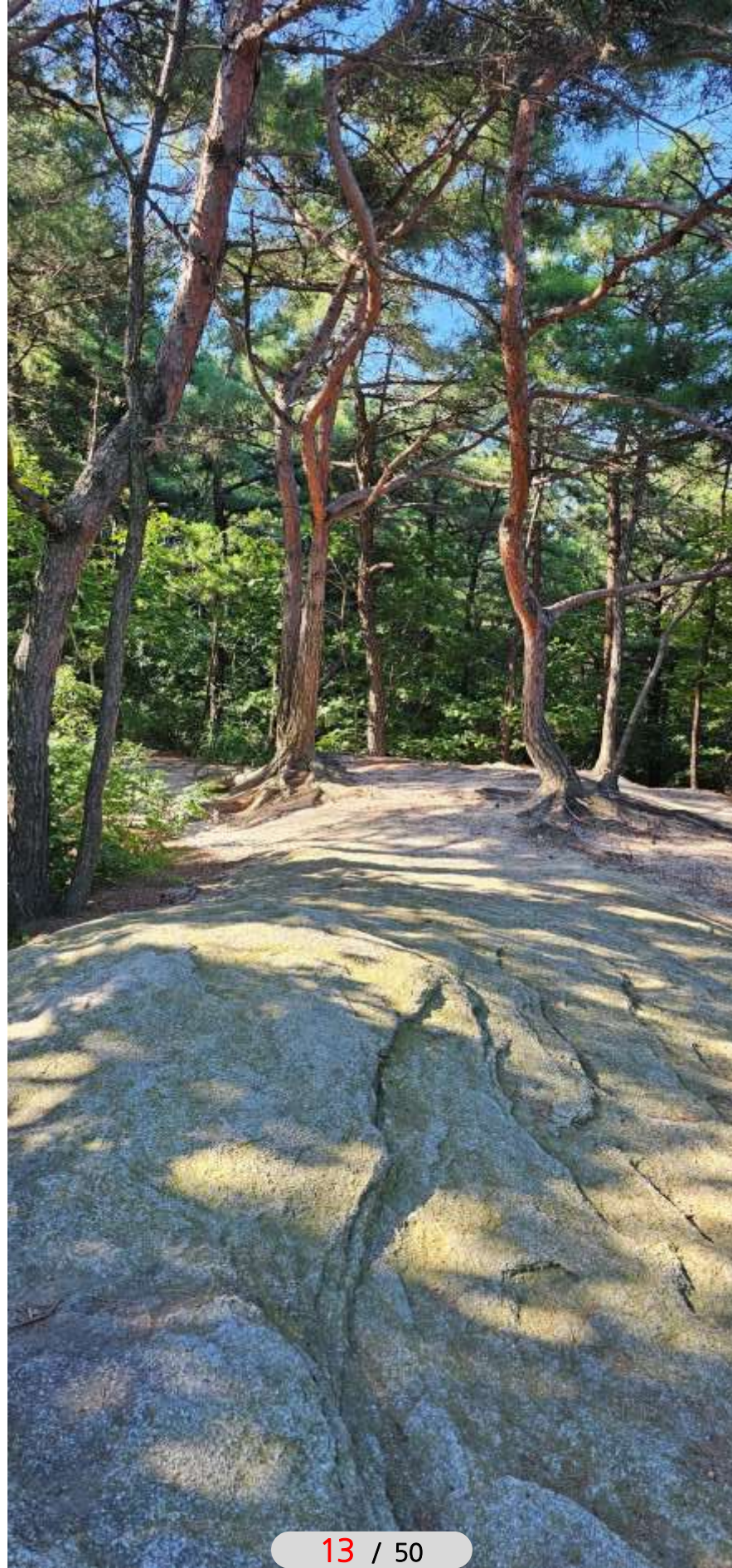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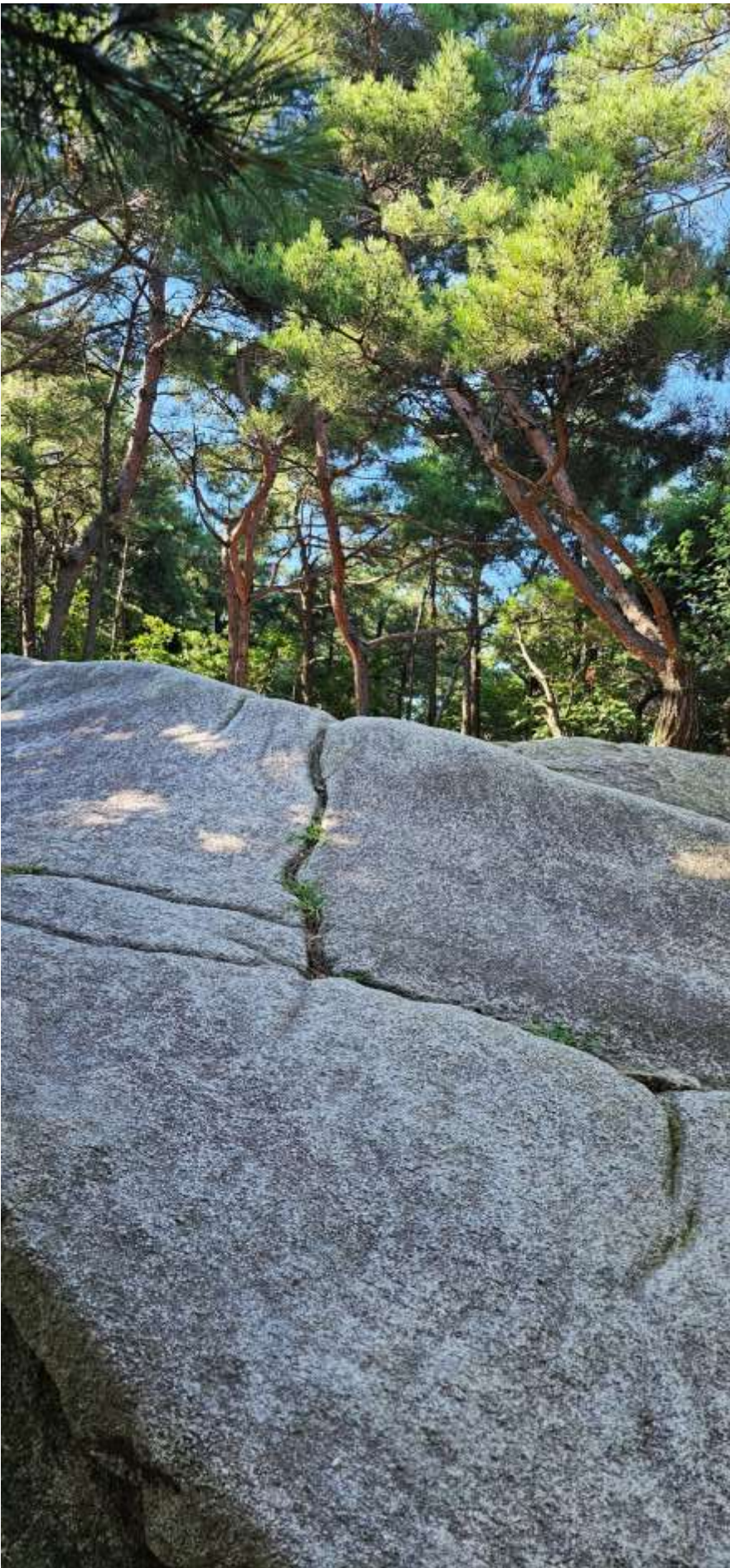
☙ 의상 능선에 곧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땀이 엄청나게 흘러내려, 잠시 이 곳에서 땀을 닦고 갑니다.



● 아하! 땀을 닦고 조금 더 운행해도... 또 다시 땀이 눈으로 들어가네요...쩍 ~~ 사진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목에 흐르는 땀 때문에 ... 상의는 거의 다 젖었습니다. ㅎㅎㅎ / 얼마 가지 않아, '백화사 방향'에서 오르는 길과 합류를 합니다. / 해발 213m 입니다. ㅋㅋㅋ



● 슬슬 암릉 구간들이 나오기 시작 합니다. / 지난 번 회사 후배들과 처음으로 쉬었던 장소 입니다. 역시, 이 지점에 오니깐... 체력에 첫번째 한계가 오는군요... 시원한 물 한잔 마시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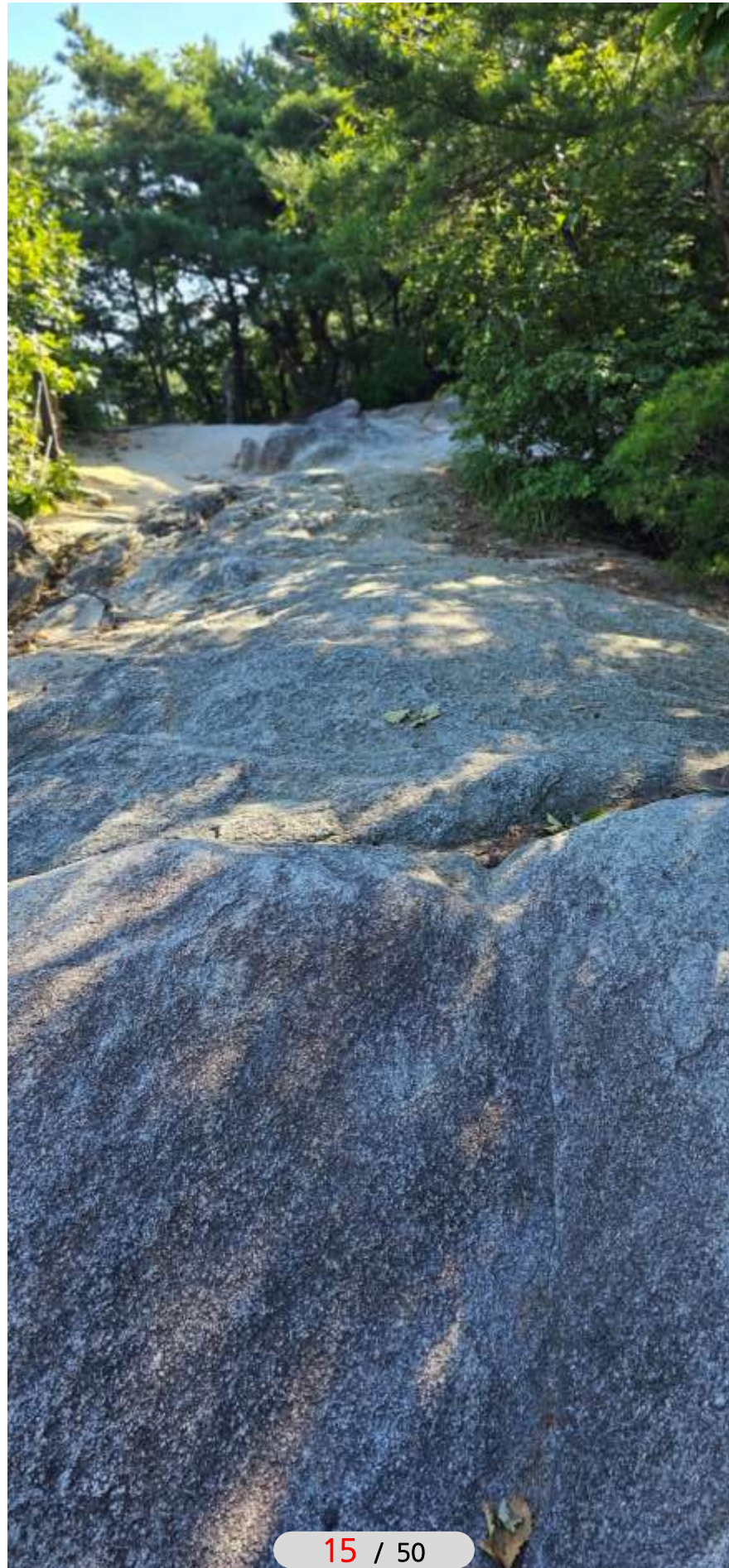


- 조망이 되는 **우측**으로 나와 봅니다. 제가 오르는 능선은 ‘의상 능선’입니다.
올라야 할 두 번째 봉우리 ‘용출봉’에서 백화사 방향으로 흐르는 “용출 지능선”도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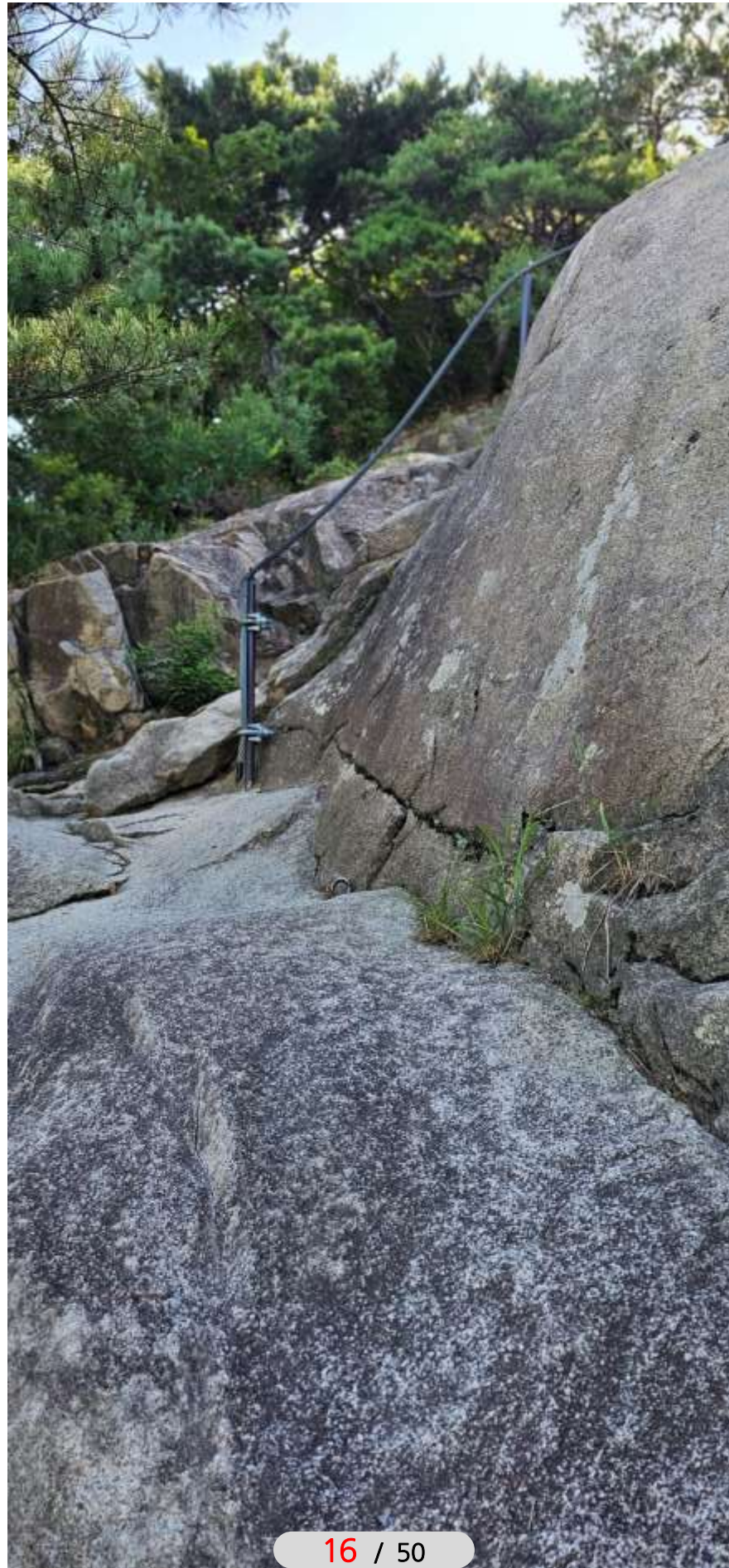
‘용출 지능선’에는 거대한 ‘고릴라 바위’가 있었습니다. (※ 정확한 바위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제가 그냥 불러보는 이름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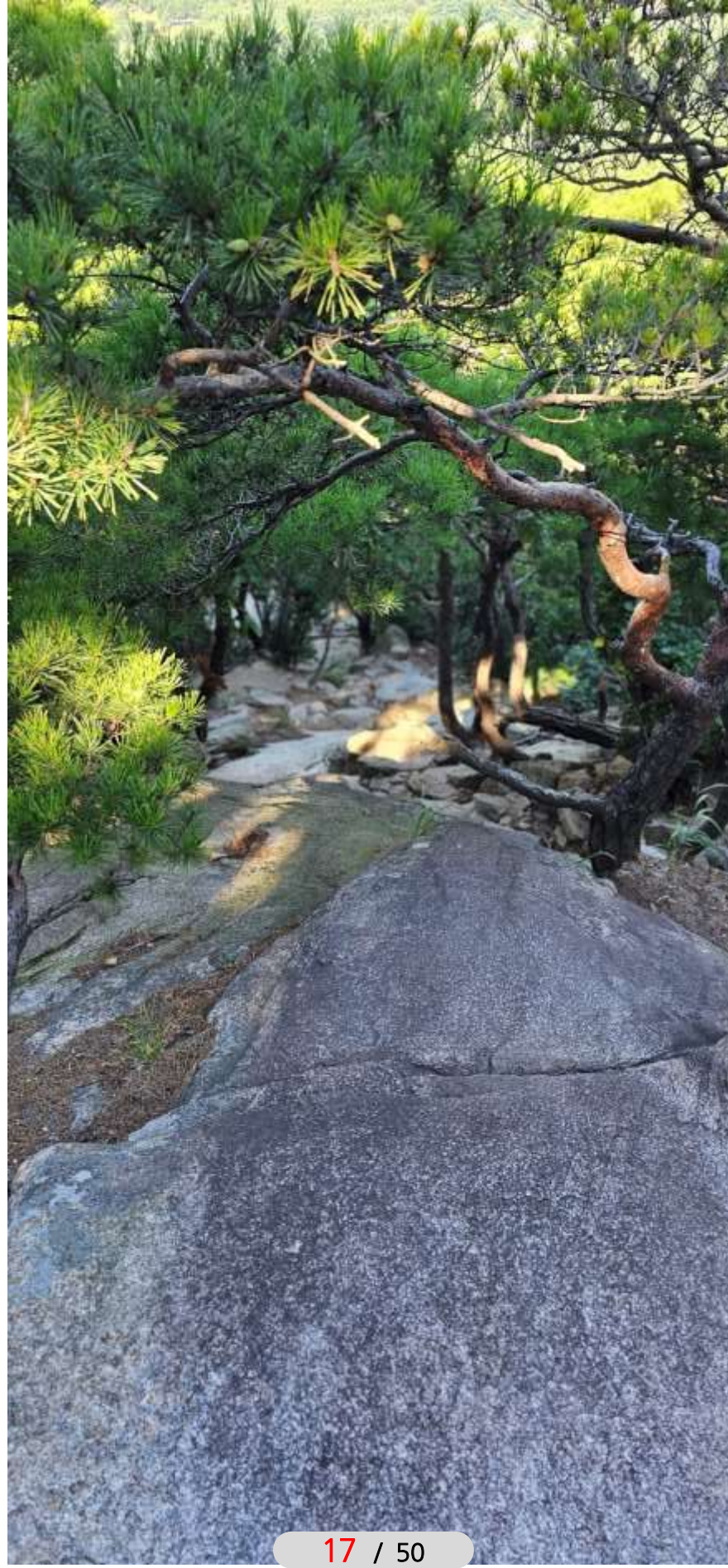
- 쇠 난간도 나오기 시작을 하며, 제법 경사도가 있는 암릉 덩어리 등산로도 나옵니다.
/ ‘의상 능선’은 북한산에서 매우 유명한 능선 이라 .. **산객님들이 많이 들 찾으시는 능선**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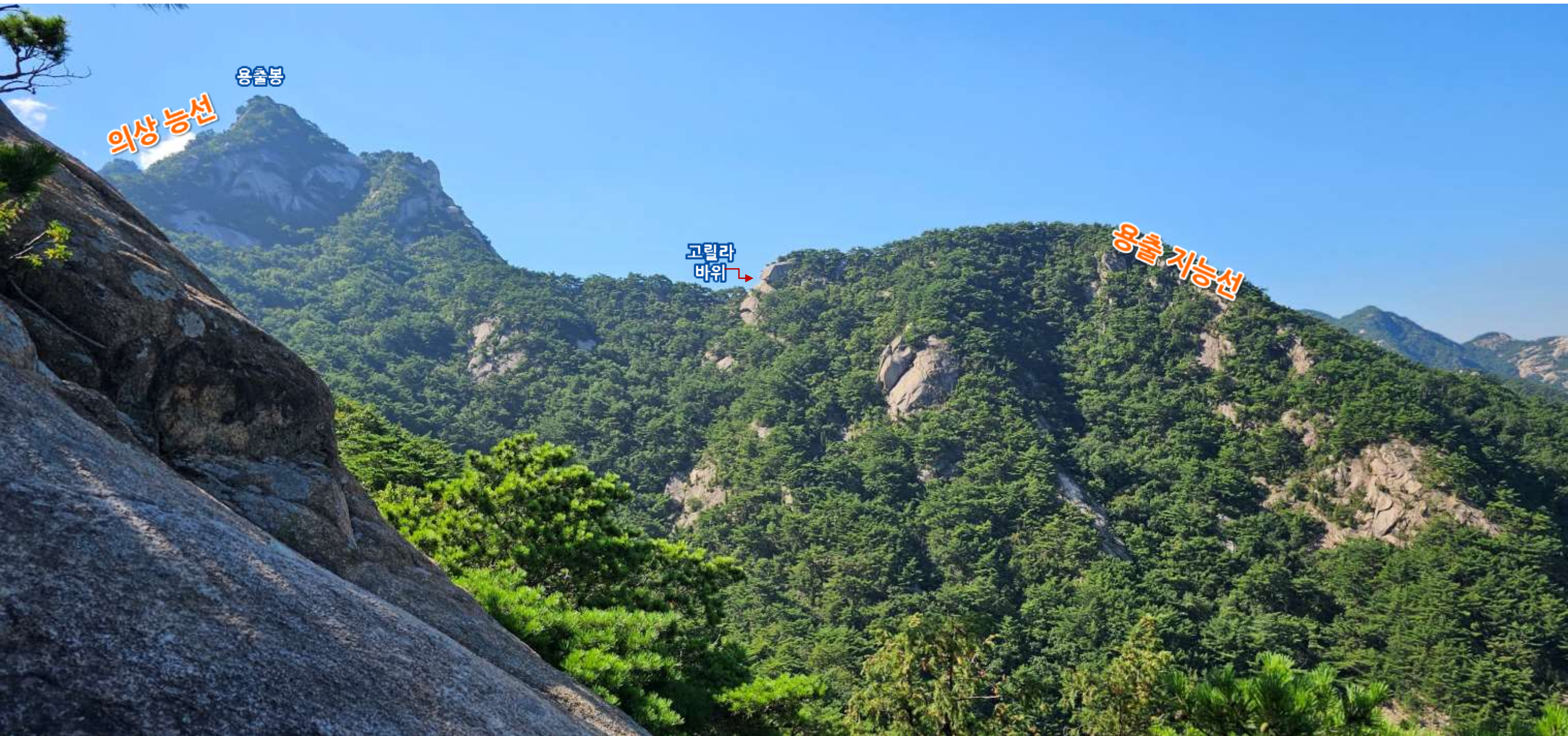
● 가파른 구간 마다, 쇠 난간이 잘 설치가 되어있어 .. 산객들을 안전하게 해줍니다. / 그러나, 약간 가파른 구간에는 자연적으로 해 둔 구간들도 있어요~



한 산객님이 가파른 구간을 올라가고 있어서...저도 그 쪽으로 같이 올라가 봅니다. ㅎㅎㅎ



●● ‘고릴라 바위’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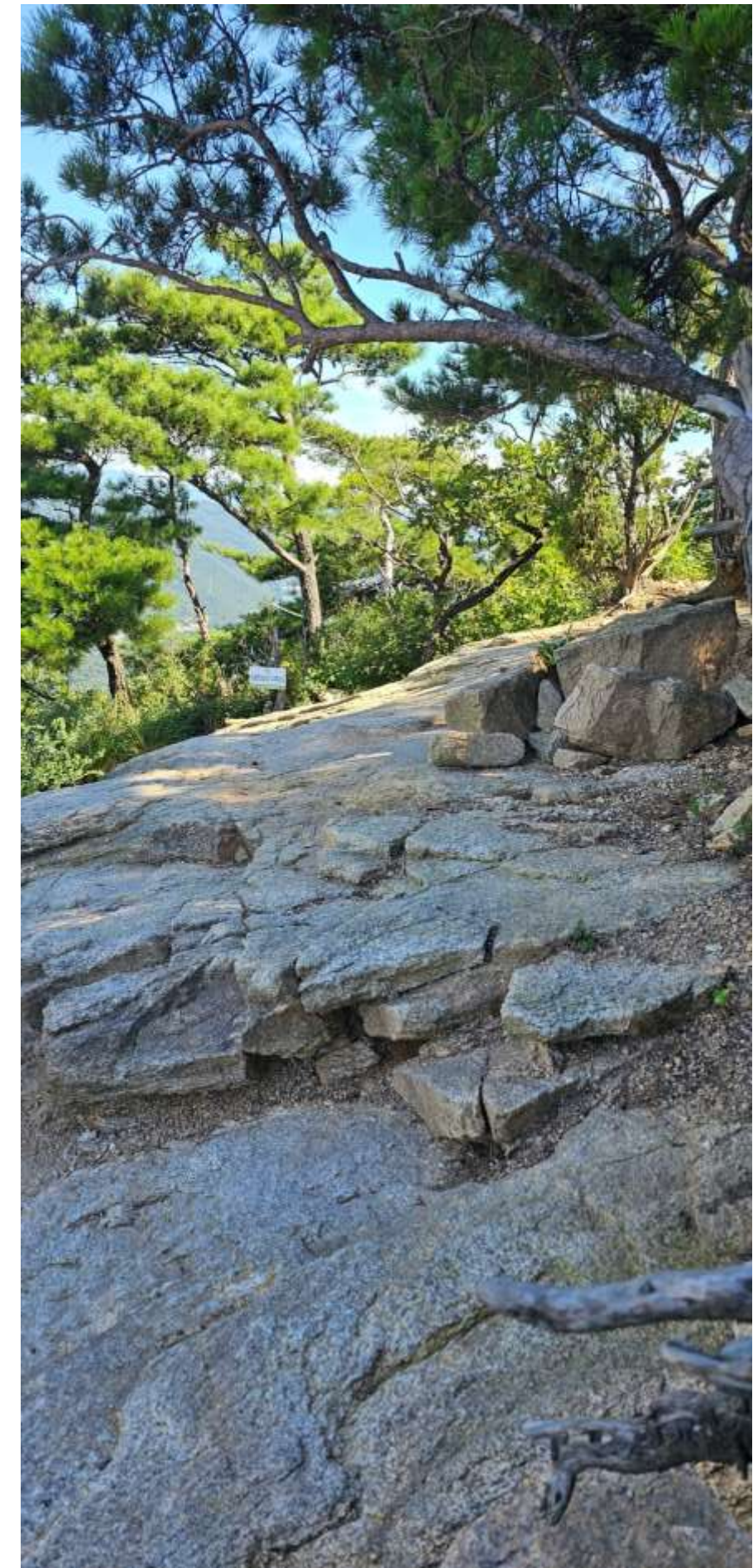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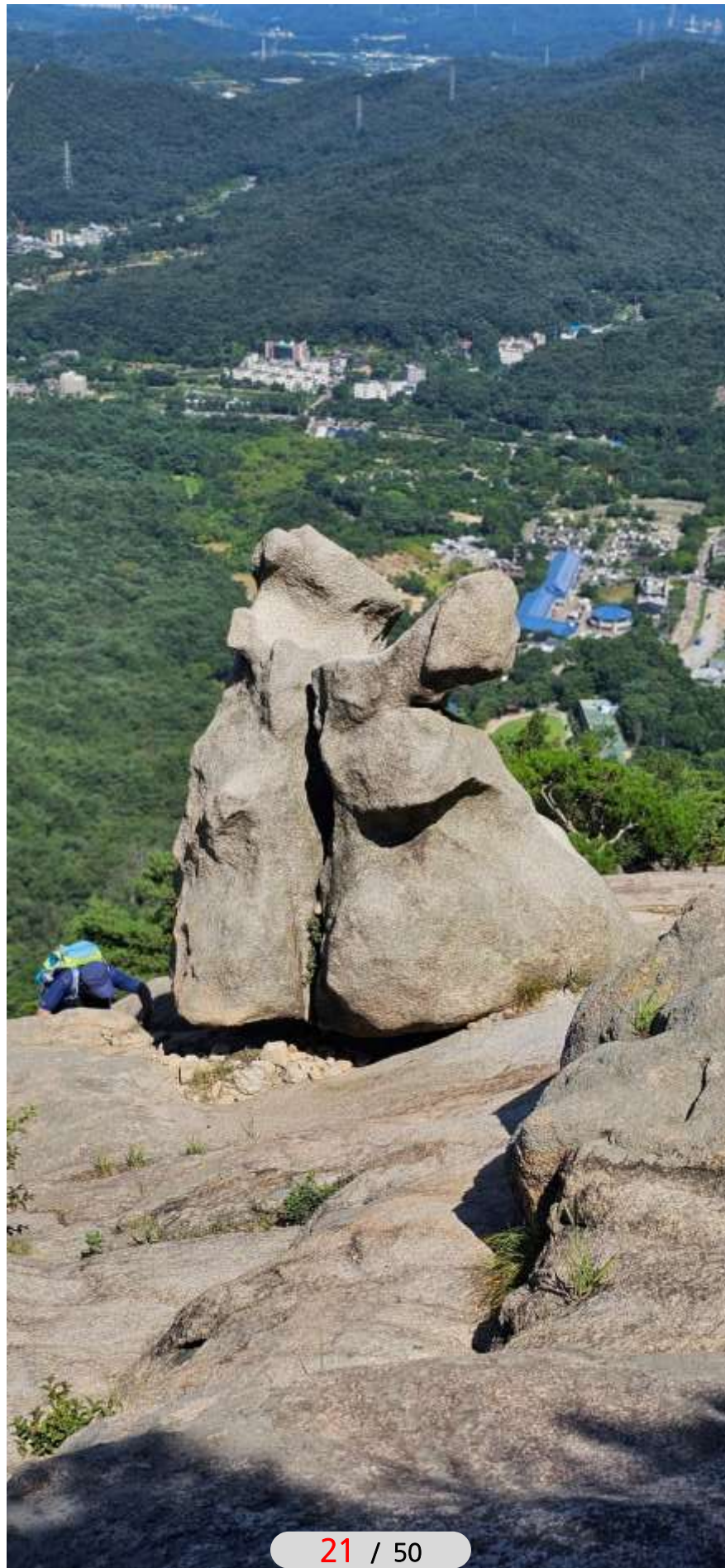
- 매우 위험한 부근은 철계단을 해둔 곳도 있습니다. / 저 보다 나이가 많으신 여성 산객 두 분이 ‘가파른 슬랩’을 가볍게 오르시고 계십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릿지화’를 신지 않았지만... 조심 조심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 심장이 졸깃 거리는 데... 이런 기분에 슬랩 길을 좋아 하시나 봅니다. ㅎㅎㅎ



● 저 멀리, 보이는 구조물이 ‘추락 주의’ 인 것으로 보아서 ... “토끼 바위”에 거의 다 온 듯 합니다. 약간 길 다란 슬랩을 따라, 올라 왔습니다.



- 의상봉의 마스크트 바위 인 “토끼 or 쌍토끼 바위” 입니다. 저는 어느 방향으로 보아야 토끼로 보이는 지...귀는 잘 보이는 데 ...ㅎㅎㅎ
우리 관악산에 있는 토끼는 모양이 매우 선명한데... ㅋㅋㅋ / 뒷 쪽 험터에서 또 쉬어 갑니다.~~ 고양시 방향과 일산 방향이 잘 보입니다.



- “토끼 바위” 부근의 조망터에서 올려다 본 “용출봉” 입니다.
‘용출 지능선’ 뒤로 보이는 “비봉 능선”의 봉우리들 이름도 같이 적어 봅니다.

지난번, 시계가 좋은 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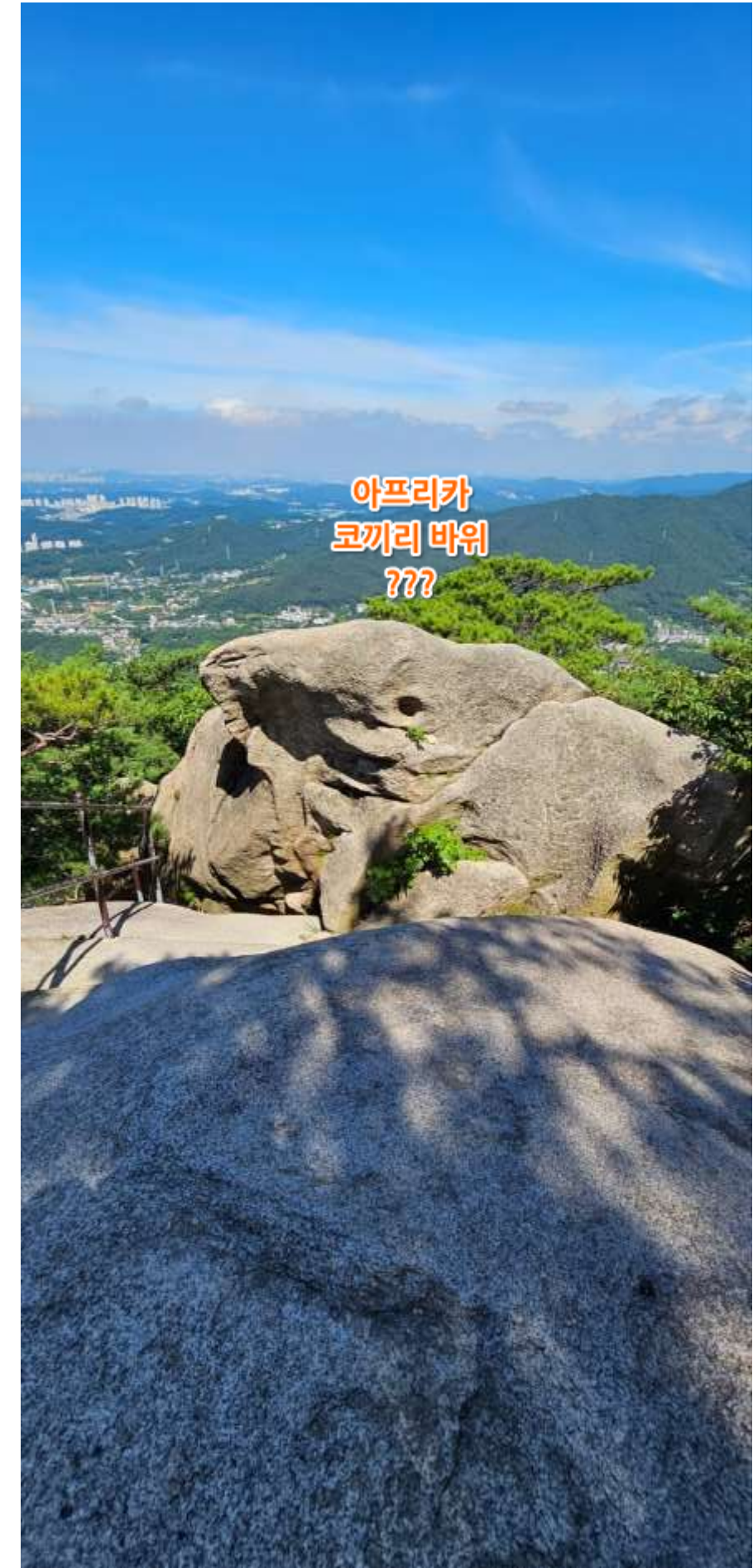
관악산 ‘버섯바위 능선’ 에;서 담았던 사진이 생각 나는군요. 평행하게 서쪽으로 이어진 능선 처럼 보이던 게 '비봉 능선'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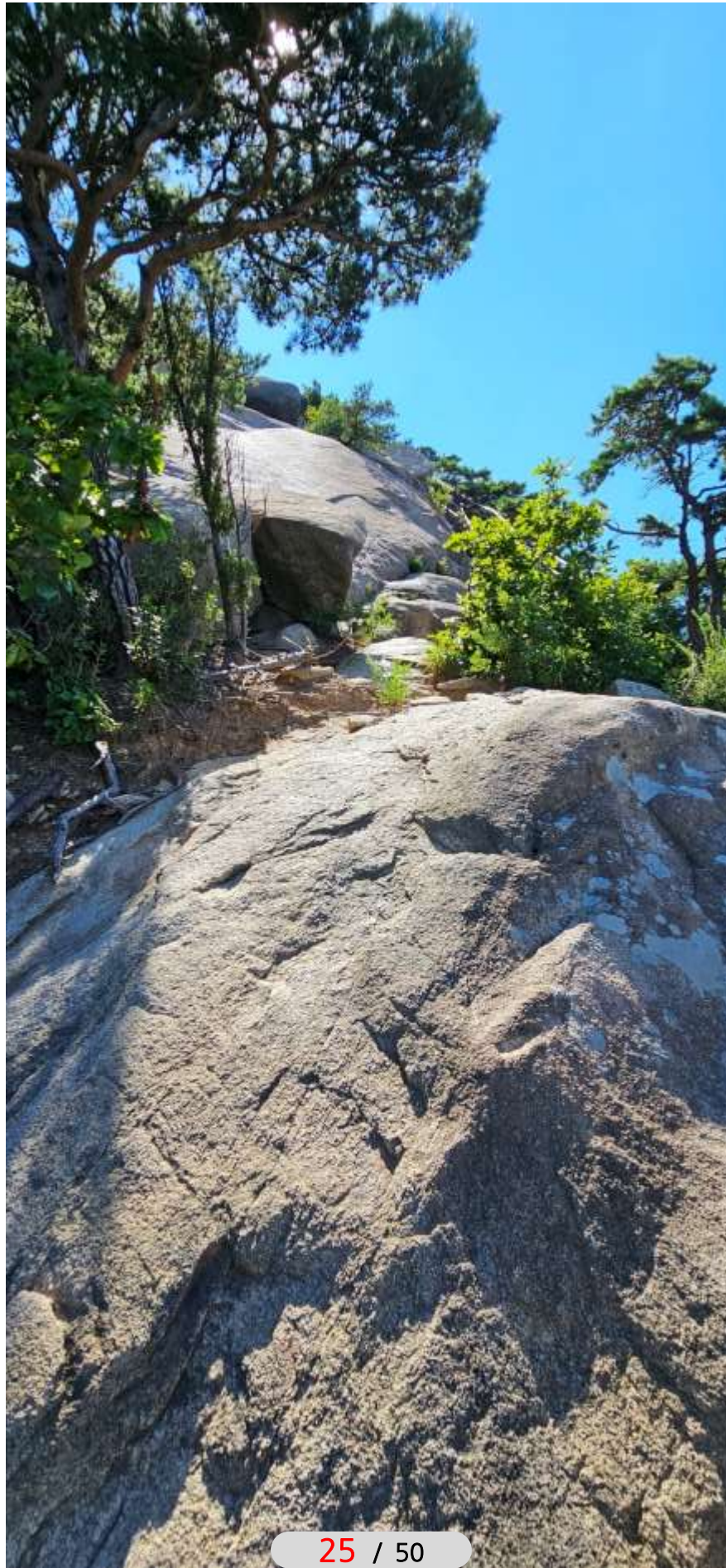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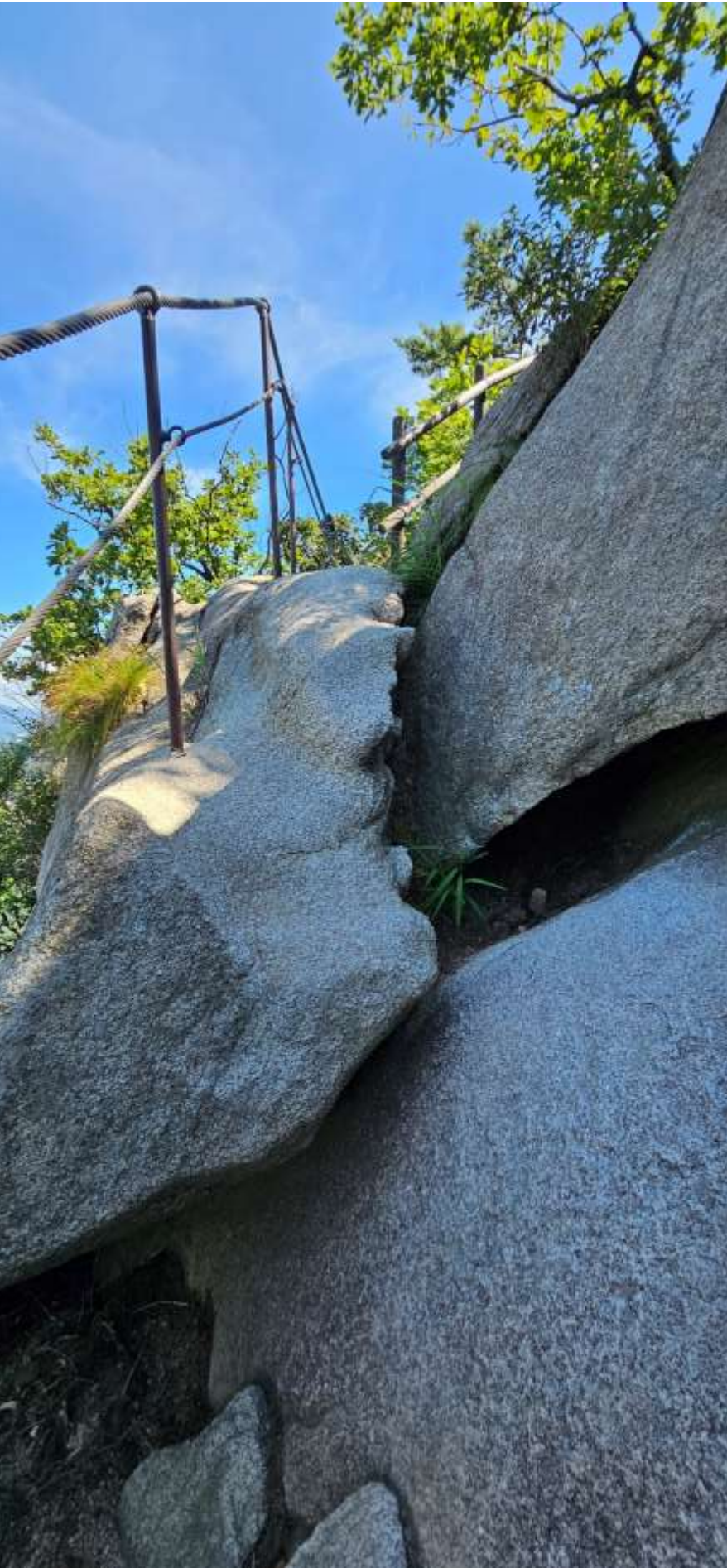
- 용출봉이 계속 잘 보이는 이유는 '의상봉'을 지나면, 우측으로 바나나 처럼 꺾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우 잘 보이는 겁니다.
/ 저는 의상봉을 오르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바짝 붙어, 슬랩 구간을 만끽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 북한산성 성벽도 낮게 있습니다. 즉, 성랑지 입니다.



- 이 성랑지를 지나면, 길이 매우 가파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의 의상봉 봉우리에 많이 다가 왔다는 증거(?) 입니다. ㅎㅎㅎ
/ 저는 저 바위를 볼 때면, 느낌이 꼭 '아프리카 코끼리'가 생각이 납니다. 혹, 바위에 이름이 있을 까요 ? ㅋㅋㅋ



● 숨이 헉헉 거리면서, 또 쉬고 싶어 집니다. / 하지만, 더 길다란 계단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기를 올라 서면, '의상봉' 정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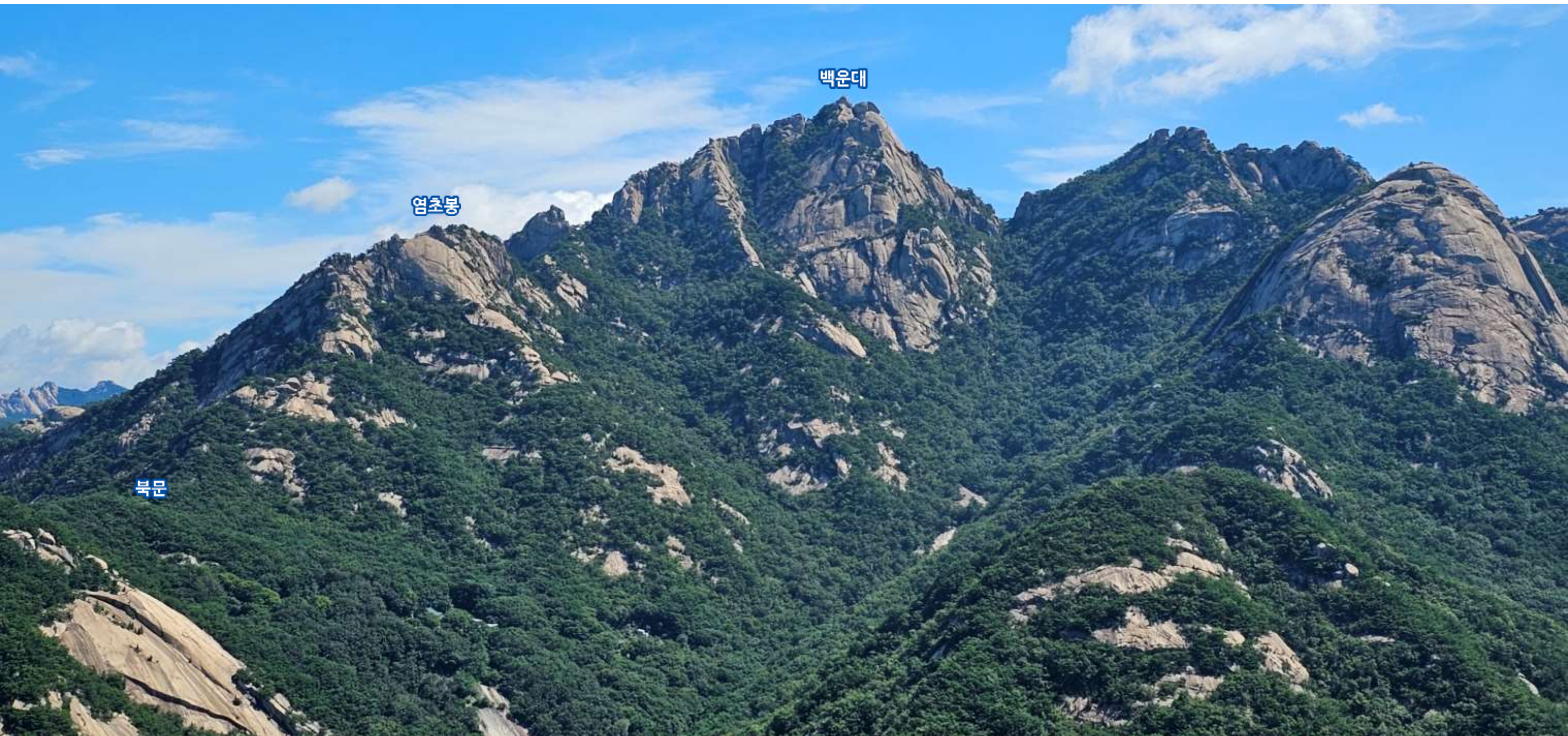
- '의상봉'을 거의 오르기 직전, 좌측으로 터지는 첫번째 조망입니다.
즉, 북한산 사령부(?)들이 우글거리며 모여 있는 곳이지요.~~~ **우와 ! 저 멀리 '도봉산 오봉'도 매우 예쁘게 잘 보입니다.** ㅎㅎㅎ

이제, '의상 능선'을 타고 가면서 **좌측의 이런 모습들을 각도만 약간씩 들어가면서...** **지겹도록 보면서 갈 것**입니다.
'의상 능선'을 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처럼 날씨가 매우 좋은 날... 이 모습을 계속 보면서 걸어가면... 모든 상념과 스트레스 해소에 **명약(?)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



- 더 당겨 봅니다.
언젠가, 북한산을 더 많이 알고 실력이 더 쌓이면, “염초봉 능선”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북문(北門)의 감시초소”을 잘 피해서 올라 가야 하는 데… 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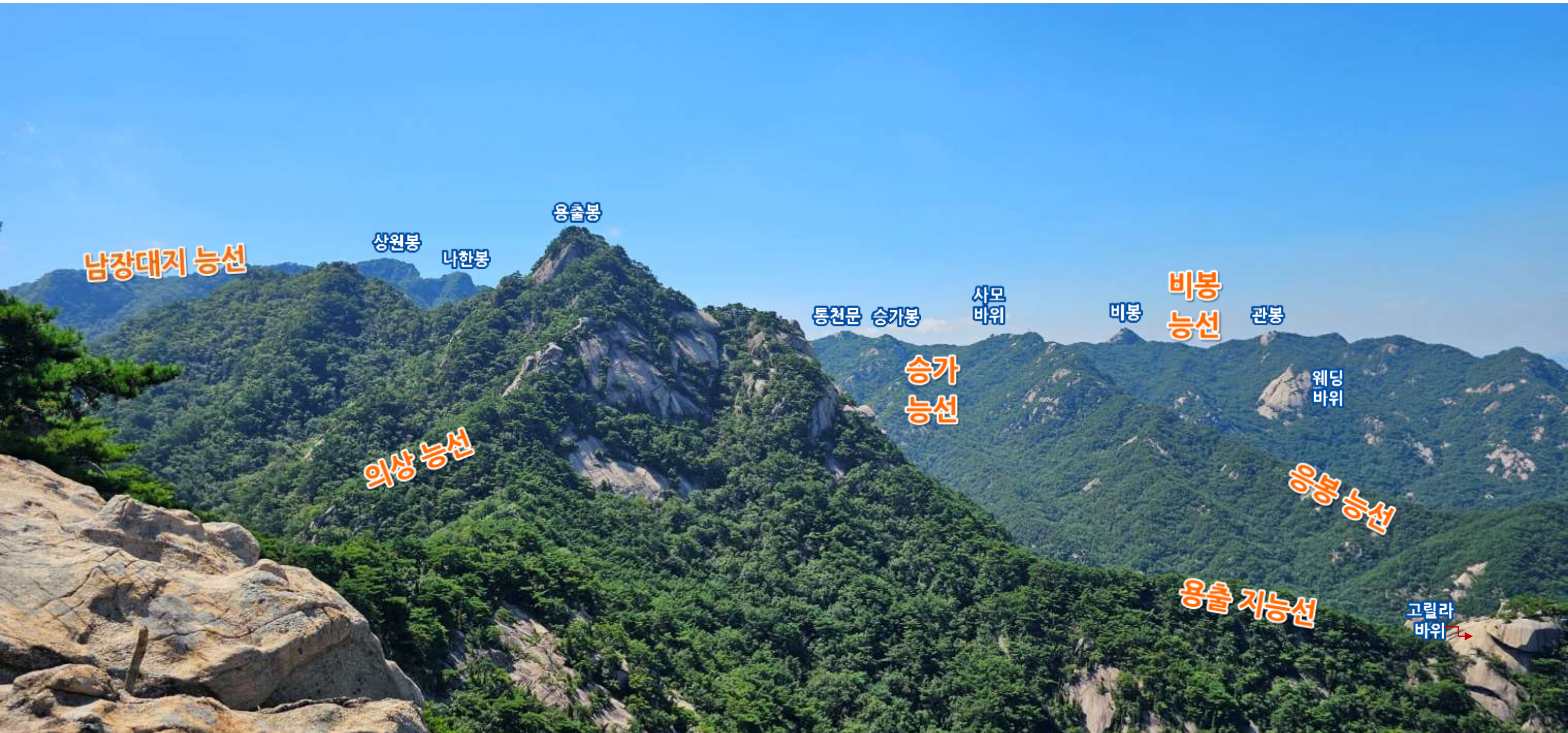
● 의상 능선의 제1봉우리 '의상봉'을 오르기 직전입니다. 왼쪽의 모습입니다. / 이제 이 길만 통과하면... / '의상봉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 '의상봉 정상'에서 바라본 모습 ...
알고 있는 데로, 이름을 달아 보아야지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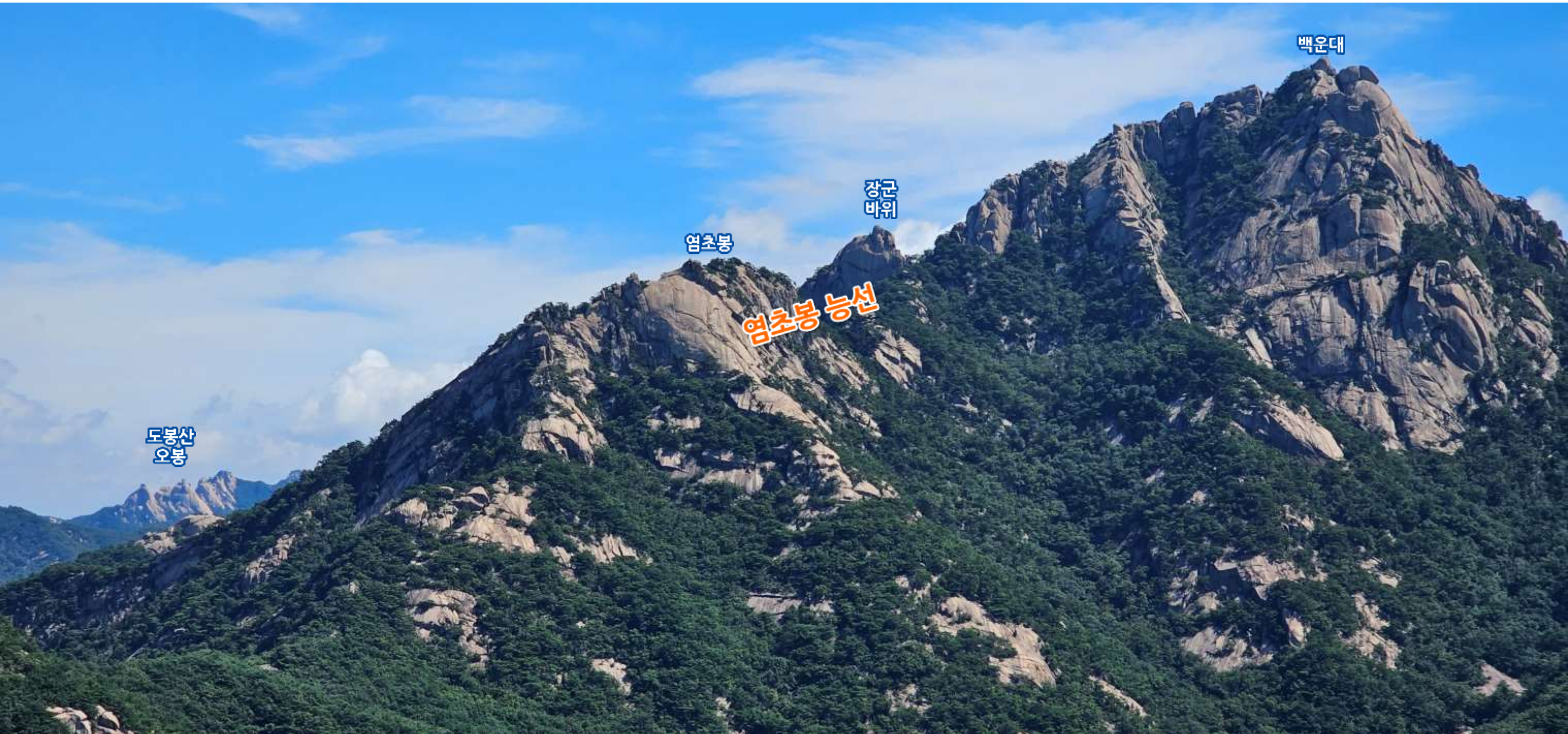
그런데, 관봉 밑으로 이어지는 대슬랩은 “웨딩 바위”라고 하던데...
결혼식을 저기서 자주 할 리는 없고... 웨딩 드레스 처럼 바위가 생겨서 인가요 ? ㅎㅎㅎ

저 멀리, ‘상원봉’ 에서 행궁지 방향으로 이어지는 “남장대지 능선”도 잘 보입니다. 저는 아직 가 보지 못한 능선 입니다.



- '염초봉 능선'도 가보고 싶은 데... 저 곳은 '장비'를 갖춘 사람들만의 영역이라...ㅠ.ㅠ.
언제 기회가 있을 런지...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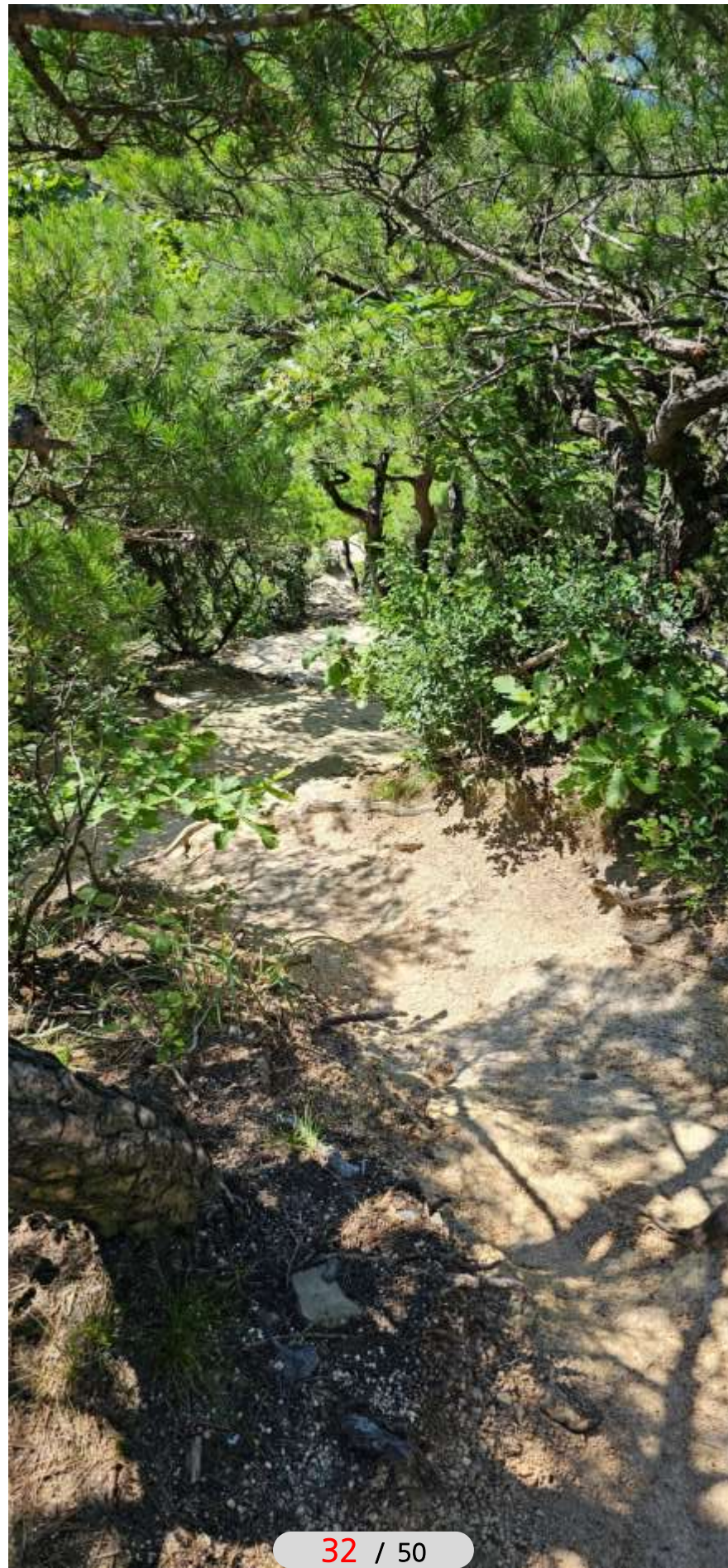
지금은 이런 모습만 바라보아도 가슴이 땡 뜁니다.~~~ ㅎㅎㅎ



- '의상봉'의 실질적인 바위 입입니다. 의상대사님은 '백운대'를 바라 보면서 참선을 했지 않을까요 ?
/ 그러나, 의상봉 이정목은 바로 앞 쪽의 봉우리에 있습니다.~ 의상봉은 502m 였습니다.



☙ '의상봉'에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들 쉬고 계십니다. / 저는 그냥 통과를 합니다. / 의상봉에서 바라본 '용출봉' 입니다.



- '의상봉'에서 가야할 방향을 바라 봅니다.
“할미 바위”는 여기서도 잘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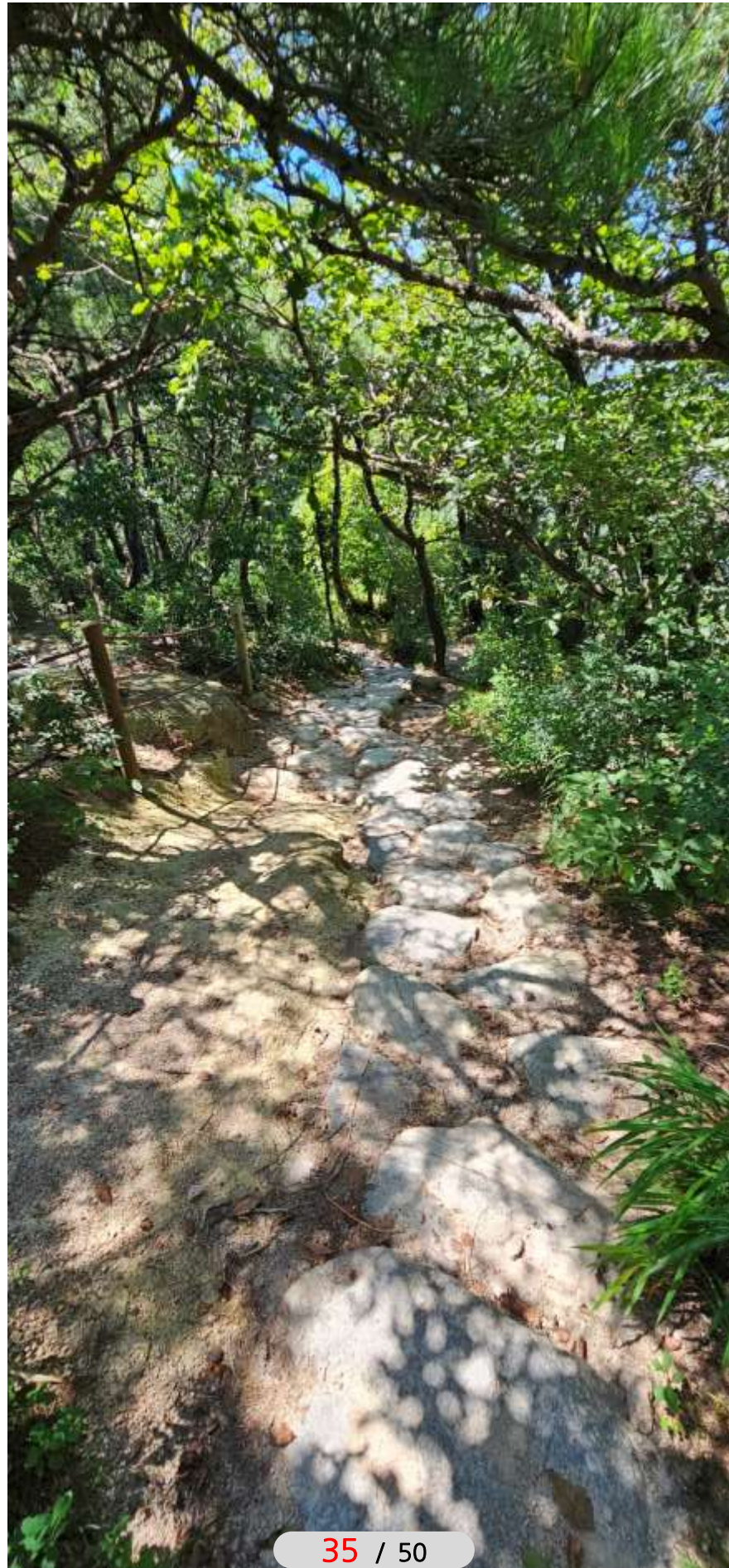
'가사당 암문' 을 지나서, '용출봉 오름 길' 구간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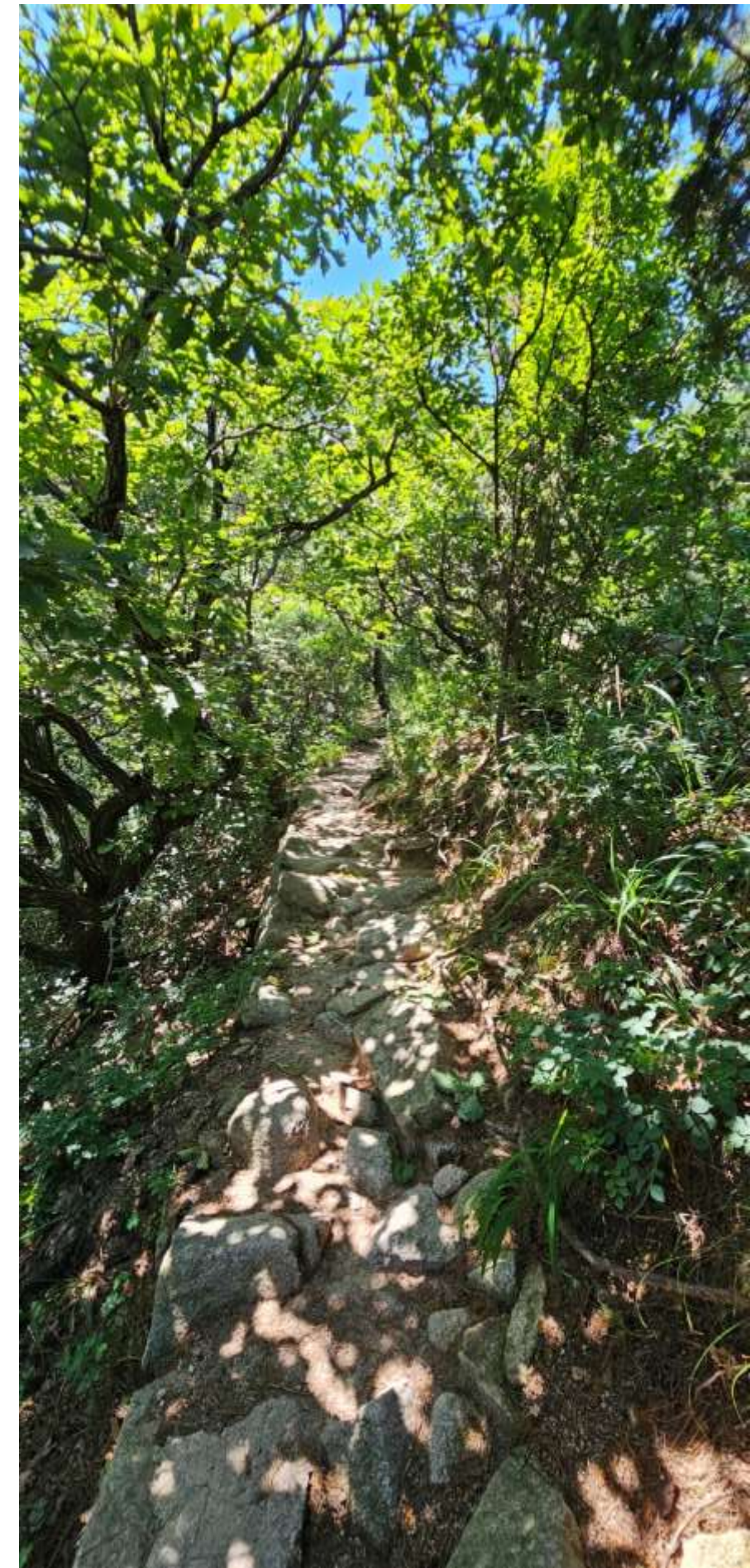
● '국녕사 대불' 입니다. 국녕사는 '가사당 암문'을 수호했던 승영 사찰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 길을 통해, 의상 능선을 새치기 (?) 해 본 적도 있었네요. ㅎㅎㅎ



● 부지런히, '가사당 암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가사당 암문' 입니다. 잠시 안내문만 사진에 담고 곧 바로 터벅 터벅... 성곽을 따라 용출봉 방향으로 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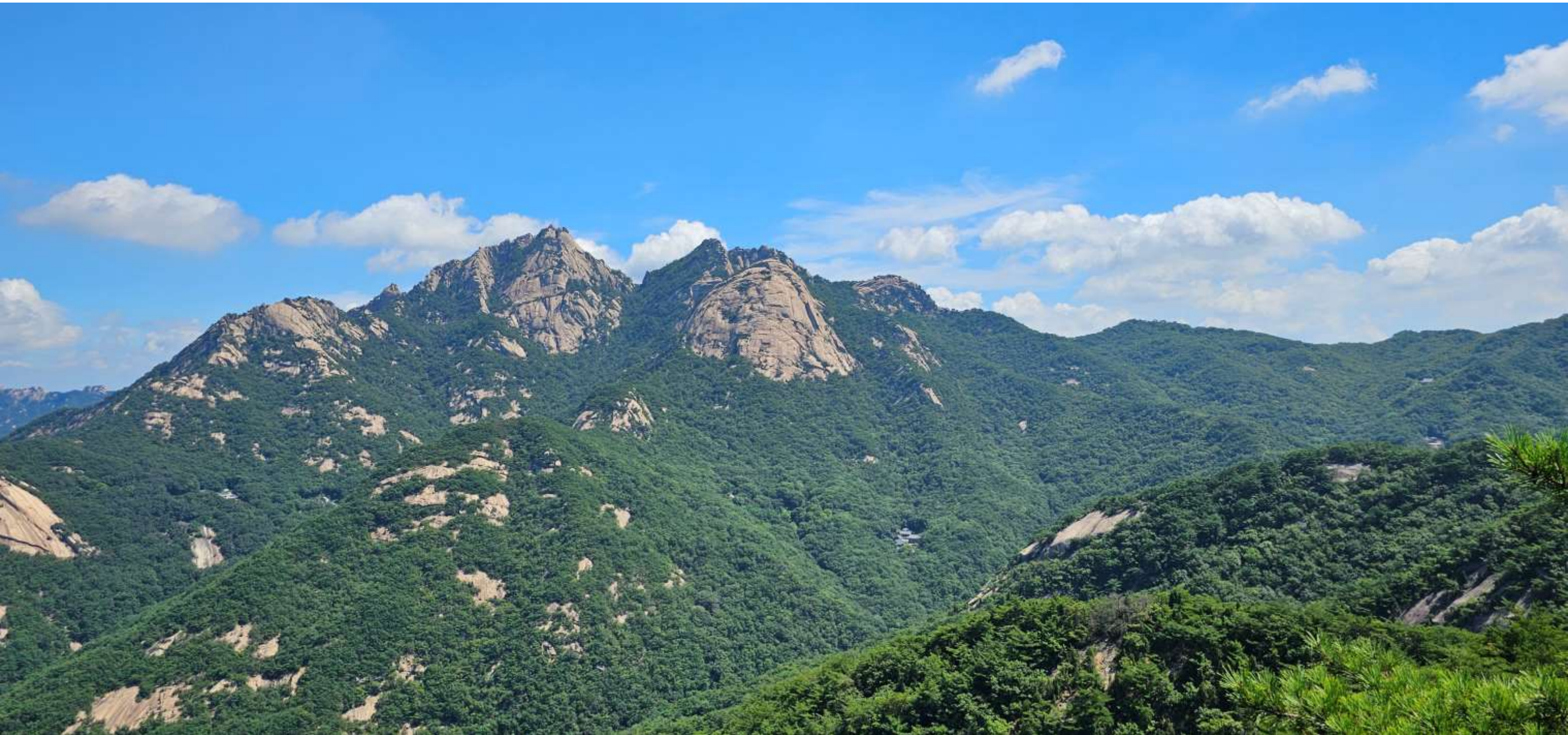
● '의상봉'까지 오르는 구간도 **약 4번 정도 쉬면서** 올라 왔었습니다. / 이 곳 '**용출봉**'도 **쉽지않은 구간** 입니다. / 멋진 젊은 여성분이 씩씩(?)하게 저를 추월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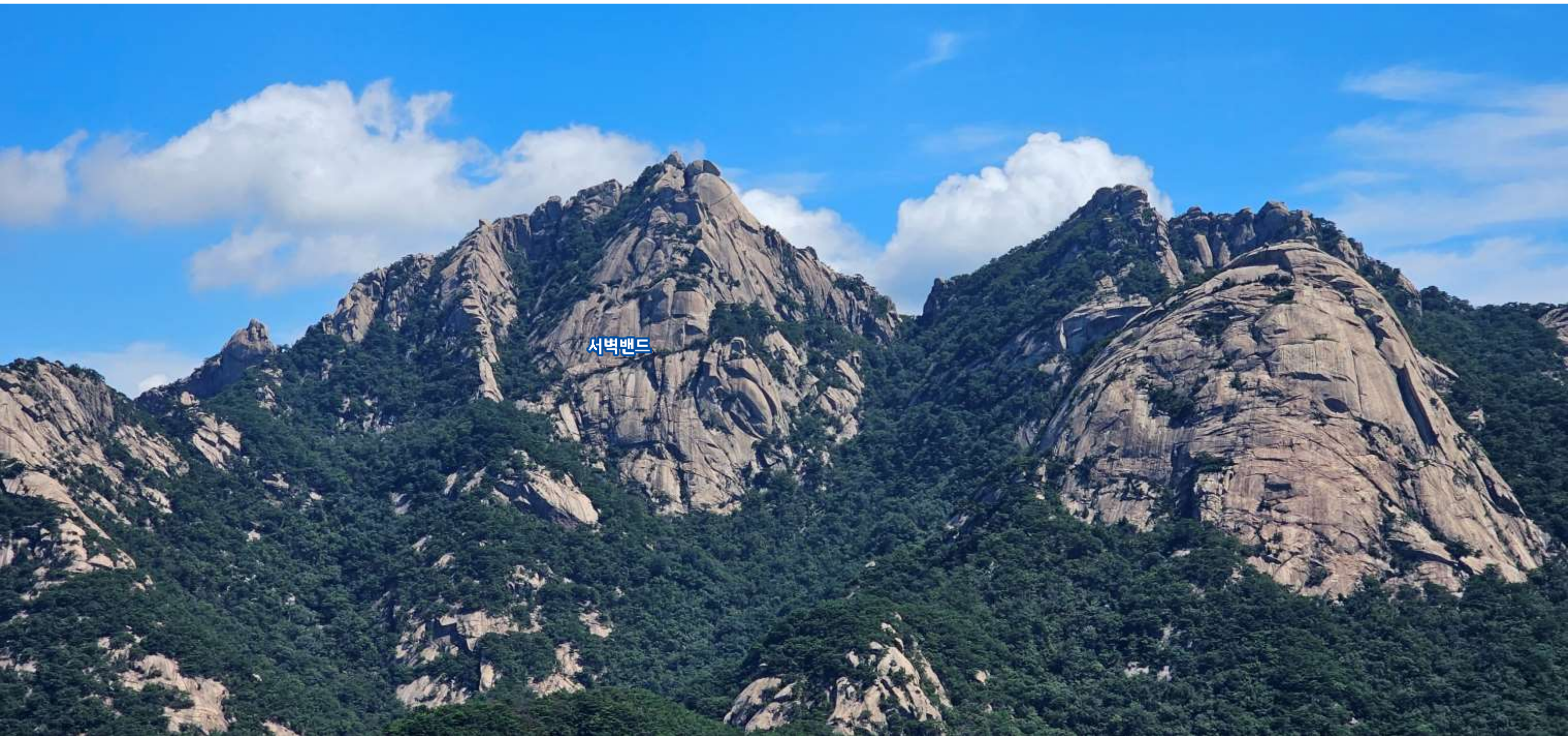
● 오호 ! 등산 선수(?) 인가요 ? 성큼 성큼 잘 올라 가십니다...저 보다 고수(?)가 분명 합니다. 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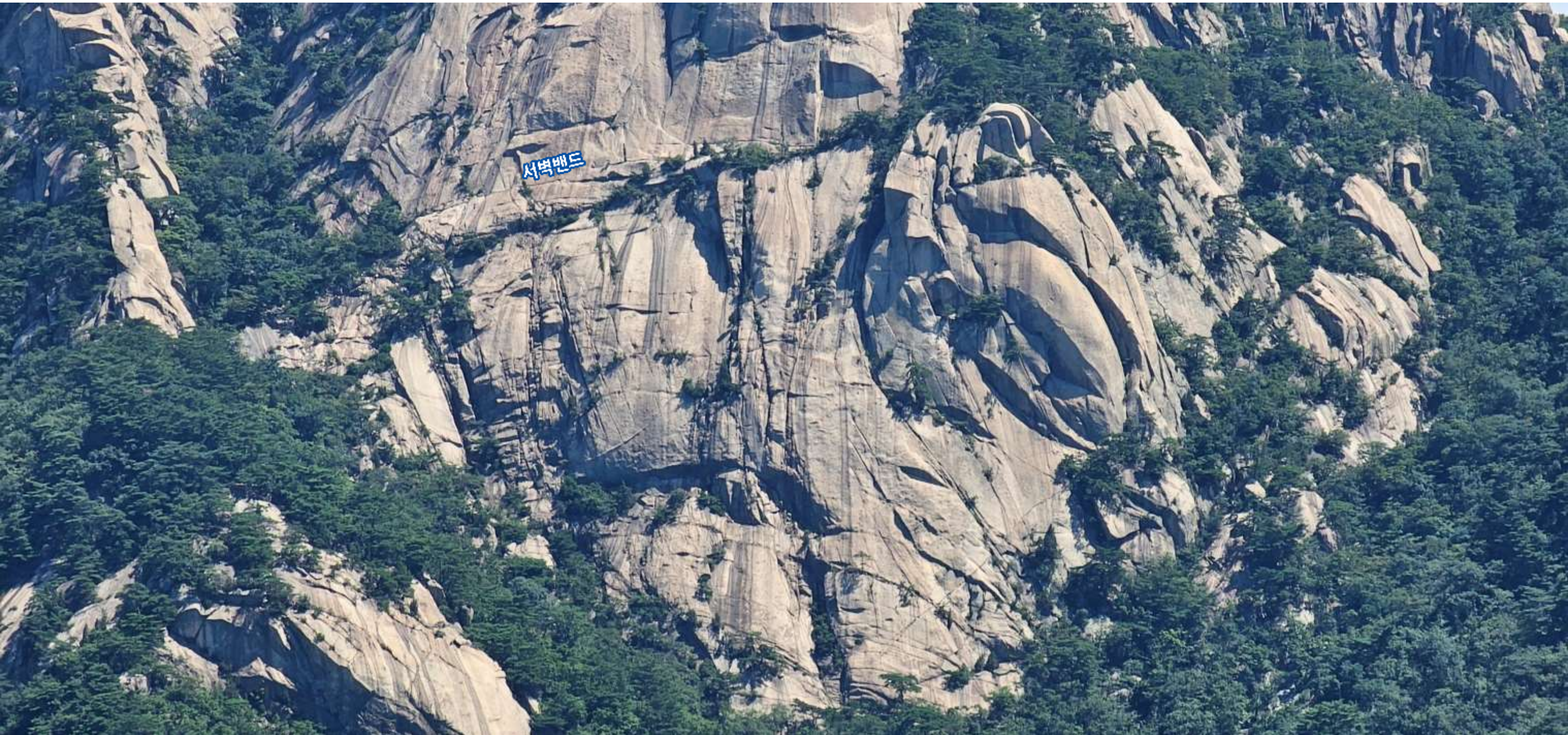
- 용출봉 중간 오름 길에서 담아 본 사진입니다.
북한산 사령부 우측으로 연결된 북한산 주능선입니다. 멋지죠~~



● 북한산 백운대 방향을 더 당겨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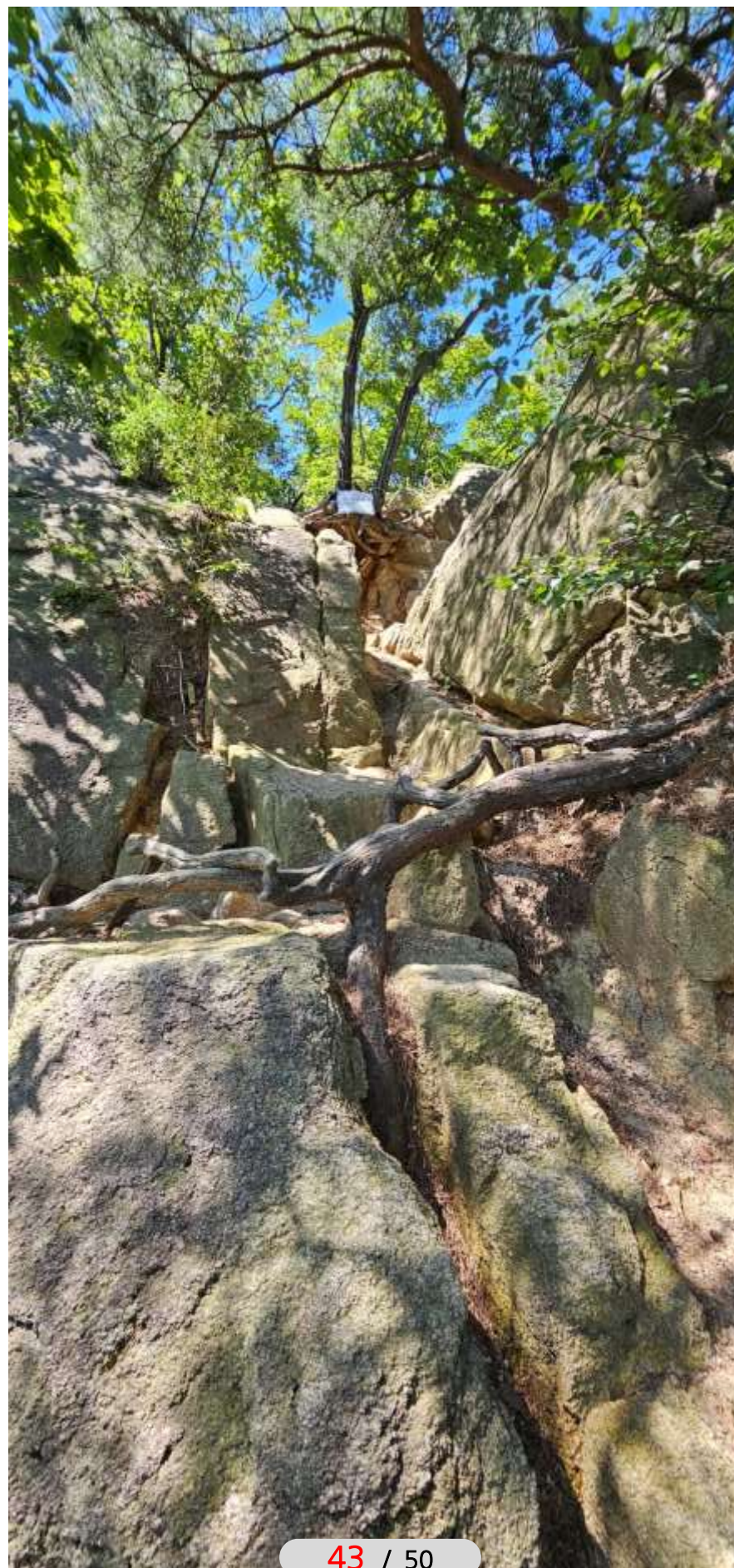
- 이름이 '서벽 밴드' 라고 하던데...
저기를 가볼 날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좌) 의상봉 / (우) 원효봉 ... 이 두분이 사촌형제 지간 이었습니다. ㅎㅎㅎ 중간에는 여성인 '윤필 거사'도 있었구요~~~



● 우측 '용출봉 삼각문' 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 마지막 오름 길까지 젖 먹이 까지 힘을 내어 봅니다. 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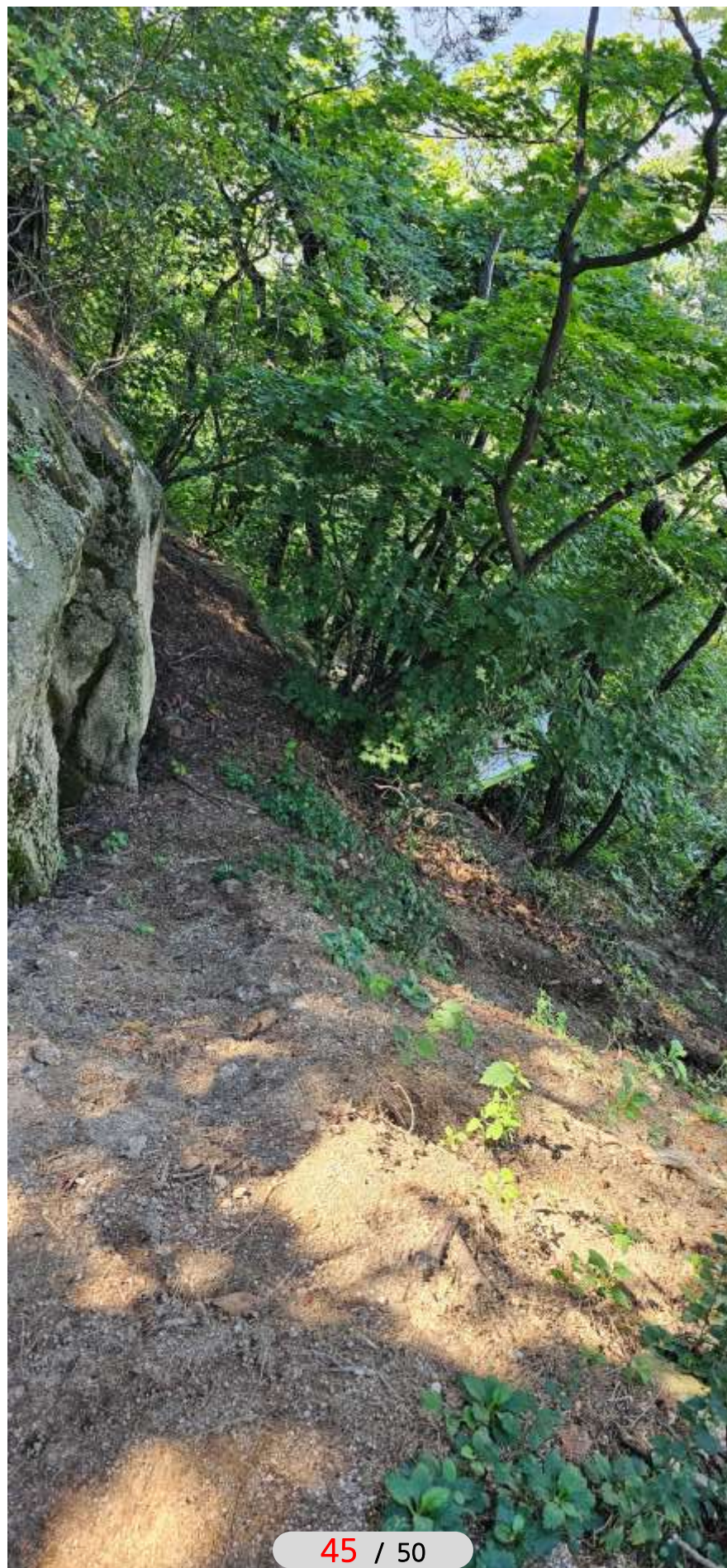


●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날씨는 매우 무더운 날씨 이지만... '의상 능선'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모습을 실컷 구경하고 싶어서 입니다. ㅎㅎㅎ



● 중간 사진에 '출입 금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 아마도 '용출 지능선'의 하방향 들머리 인가 봅니다. 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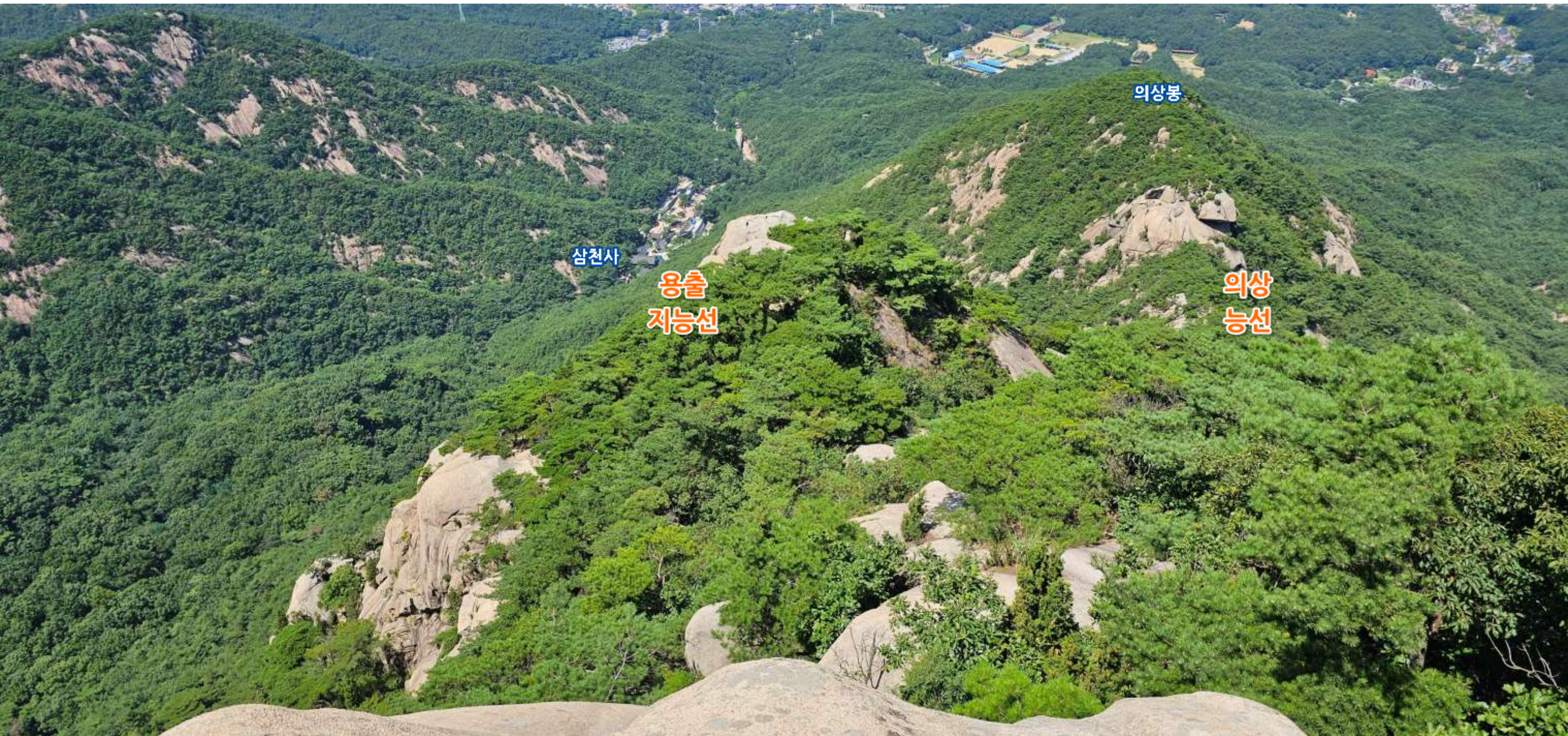


이 곳도 '용출 지능선'의 하방향 들머리 인가 봅니다. ㅎㅎㅎ 저는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은 더 가봐야 할 좋은 능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저는 지금, '용출봉' 정상에 거의 다가 섰습니다.

지나온 길과 좌측 길을 바라보니, 삼천사 계곡으로 떨어지는 지능선 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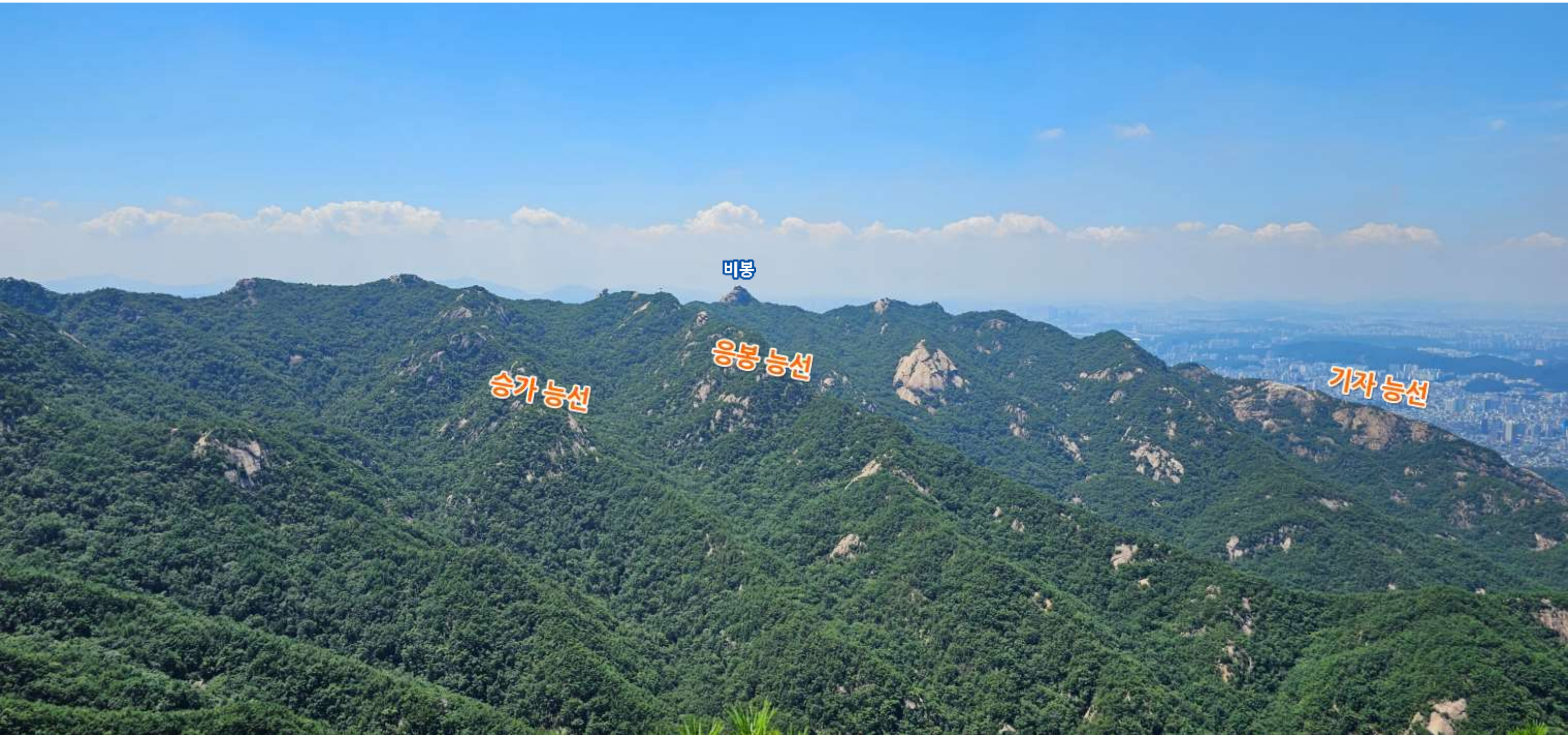
- 북한산에서 등산 코스를 알아야 할 사찰 이름이 있다면... 아마도 진관사 / 삼천사 / 도선사 정도는 기억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사찰을 통하는 계곡과 능선들이 매우 중요한 능선/계곡 이라.. ㅎㅎ



- “북한산 순수비”가 서있는 ‘비봉’ … 좌/우측은 봉우리의 이름들은 이제 여러 분들의 몫 (앞 쪽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음 ^^;) 입니다. ㅎㅎㅎ

다음 번 기회가 된다면, ‘승가 능선’을 타 보려고 합니다.

아니다… 차주 일주일 휴가를 낼 꺼니 간… “광복절 전/후”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ㅋㅋㅋ



● 계속해서 2부로 이어 갑니다.

